

새정치 원내대표 선거 결국 '4파전'

우윤근·주승용·이목희·이종걸 후보 등록

9일까지 단일화... 2명으로 압축 가능성

새정치민주연합의 차기 원내대표 후보 등록 마감일인 6일 우윤근·주승용·이목희·이종걸 의원이 후보 등록을 마감에 따라 경선이 개표 간 세 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애초 당 분란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합의추대론'이 거론됐으나 후보 등록이 잇따르면서 무산됐다. 또 '친노(친노무현) 대 비노(비노무현)' 진영의 단일 후보군 간의 2파전이 예상됐지만 양측 모두 후보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친노·범 구주류 대 비노·신주류 간 대리전 구도도 초반 전선이 형성됐다.

그러나 친노·구주류 진영의 우윤근·이

목희, 비노 진영인 신주류 그룹의 이종걸·주승용 의원이 경선이 치러지는 9일까지 후보단일화 논의를 계속 해나간다는 입장 이어서 최종 후보는 압축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별로는 우 의원과 주 의원은 호남 출신이어서 호남 의원들의 선택이 주목된다. 이종걸·이목희 의원은 수도권에 기반을 두고 있다.

친노·구주류 후보군의 경우 3선의 우 의원은 중도온건, 재선의 이 의원은 강경파로 분류된다.

한때 합의추대 대상으로 거론됐던 우 의원은 정책위의장으로서 박 전 원내대표와



우윤근 의원 주승용 의원 이목희 의원 이종걸 의원

함께 세월호법 협상을 주도해온 점이 협상의 연속성이라 측면에선 장점으로 꼽힌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를 선언하면서 ““계파를 떠나 모든 분들과 소통하고 상처를 보듬는 화합의 정치를 하겠다”며 “정치 균형감과 합리성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열의 민평련 및 강경파 초재선그룹이 주축을 이룬

“더 좋은 미래” 소속인 이 의원이 출마 명분으로 내세운 것도 세월호법 후속 협상 등에서의 야당성 회복이다.

이에 맞서는 신주류 측의 세 규합 움직임도 가속화하고 있다. 김한길·안철수 전 대표의 비대위 불참으로 내부에서 ‘소외론’이 확산하면서 원내대표 경선에서마저 밀리던 주도권을 완전히 내출 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2014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장병들이 국정감사장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막오른 국감... 여야 '세월호법' 힘겨루기

국정감사가 7일부터 20일간 대장정의 막을 올린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장외 공방이 1라운드였다면 이번 국감은 정국 주도권을 장악을 놓고 여야가 모든 전력을 투입하는 '2라운드'다. 이번 국감을 통해 주도권을 잡아야 주요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국감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의 구체적 법 조문 성안을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첨예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 중인 담뱃세·지방세 인상안을 둘러싼 '증세 논란'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의 서비스산업·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로 다시 관심을 끄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북한 인권과 남북 관계 개선 해법 등도 주요한 이슈로 꼽힌다.

여야는 6일 원내에 국감상황실을 설치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국감 준비와 전략 마련 작업에 일제히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을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천명한 '국가 대개혁'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로 만들어낸다는 방침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적폐'를 없애기 위한 각종 개혁 작업

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감이 정쟁으로만 흐르지 못하도록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는 철저히 대처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국감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버러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여야 대립으로 청문회도 치르지 못한 만큼 국감을 책임 규명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적인 원내대표 선거가 9일 예정대 국감 초반은 제1야당의 강력한 예봉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회의원 세비·고위공직자 임금 野 정치혁신실천위, 동결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국회의원 세비와 고위 공직자 임금 동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 묶인 국회도서관장직도 외부 공모를 실시해 선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치혁신실천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당 혁신안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의원 세비 인상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세비를 산정하도록 외부인사 중심의 세비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임금도 동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임동욱기자 tuim@

평가라운드

이윤석 “신규 고속도로 계획도 호남 차별”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무안·신안) 의원은 6일 “정부차원의 전국 고속도로 계획에서 호남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고속도로 사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에 건설중인 고속도로 18개 사업 중 광주·전남은 단 한 건도 없고, 전북은 1건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곳, 충북 3곳, 경남 3건, 울산과 경남 연결도로 1곳, 전북·경남·경북 연결도로 1곳이었다.

이 의원은 “올해 고속도로 건설 국비 지원은 총 1조4095억원으로, 전북과 경남, 경북지역이 수혜 대상인 성산~담양간 고속도로 사업비 2000억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호남지역 내 고속도로 신설 예산은 0원이었다”며 “고속도로 건설에서도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장병완 “전기연구원 분원 광주 남구에 유치”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은 6일 국책연구기관인 전기연구원 광주 분원이 총 사업비 405억원, 9만 9000㎡(3만평) 규모로 광주 남구 일원에 들어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수년전 전기연구원 광주지역 조직 설립을 추진해왔지만 지방비 부담 비중과 부지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는데, 장 의원이 재정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내년 정부예산안에 설계비 7억원을 편성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부지문제 협의도 사실상 마무리돼 내년 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장 의원은 “국가 R&D 예산이 지나치게 편중돼 있는 현실에서 전기연구원 지역 조직 설립은 관련 산업 육성 뿐 아니라 지역균등 예산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임내현 “대법원 상대 국민청원 3년새 49% 증가”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광주 북구) 의원은 최근 3년간 대법원에 대한 국민청원이 49%증가했으며, 전체 국민청원 중 재판 진행 및 결과 불만에 전체의 81%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이 대법원에 대한 ‘국민청원 세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대법원에 대한 국민청원 3187건 중 67%인 2145건이 ‘재판결과 불만’에 집중됐고, 14%인 433건은 ‘재판진행 불만’에 대해

제기됐다.

‘재판결과 불만’에 대한 국민청원은 2011년 537건에서 2013년 1070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재판진행 불만’에 대한 국민청원 또한 2011년 141건에서 2013년 160건으로 증가했다.



이개호, '1호 법안' 지방화촉진 기본법 대표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은 6일 국회 등원 1호 법안으로 '지방화촉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다.

우선 국가는 지방화 촉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법령·재정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국가정책추진과 예산확정과정에서 지자체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국가정책이 지방에 영향을 미친다면 해당 지자체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들의 일정비율을 지자체가 추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실현돼야 한다”며 “지방화 촉진 기본법을 통해 지방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요한14-01호공고」

재단법인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법인사무국 직원모집공고

재단법인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에서는 법인사무국에서 열정적으로 미래를 이끌어 함께 할 수 있는 참신한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1. 채용분야**
 - 1) 직 종 : 법인 행정사무직
 - 2) 근무형태 : 정규직
 - 3) 모집인원 : 1명
 - 4) 자격조건
 - 4년제 정규대학 졸업 이상(회계계정학자우대)
 - 비영리단체 근무경험자
 - 외국어 능통자 우대
- 2. 업무내용**
 - 1) 법인업무 : 법인 행정 및 회계관리
 - 2) 법인 산하 센터 지원업무 :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노숙인센터 등
- 3. 근무 및 급여조건**
 - 1) 주40시간 근무
 - 2) 연봉제 적용(경력에 따라 협의)
- 4. 전형 및 제출서류**
 - 1) 전형 : 서류전형, 면접(추후개별통지), 신체검사(합격자에 한함)
 - 2)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 자기소개서
 -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 성범죄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해당자만)
 - 운전면허 1종 보통면허 이상
- 5. 제출방법 및 시기**
 - 1)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발송
 - 2) 서류제출시기 : 2014년 10월 7일~17일(오후5시까지)
 - 3) 제출처 : 법인 사무국 (광주광역시 북구 중가로 26, 4층 천주의성요한수도회)
 - 4) 담당자 : 이경희(510-3013)

2014년 10월 7일

천주의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목포백련지구 공동주택용지 공급공고

사업지구	분류	주택규모	면적(m ²)	세대수	최고층수	건폐율	용적률	공급금액(천원)	신청예약금(천원)
목포백련(공공2)	B-1	60~85㎡	13,428	222	15층 이하	30% 이하	180% 이하	15,263,300	500,000
	B-2	85㎡초과	16,500	211	15층 이하	30% 이하	180% 이하	15,263,300	500,000
소계			29,928	433					

* 세부내역은 우리 공사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 매각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공급일정 및 장소**

공급방법	분양신청 및 신청예약금납부	추첨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추첨	2014.10.22(수) (10:00~16:00)	2014.10.23(목) (10:00)	2014.10.23(목) (13:00)	2014.10.24(금) (09:00~18:00)
- 3.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주택법 제9조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자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에 의함)
- 4. 신청예약금 납부/귀속 및 반환**
 - 당첨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 및 신청예약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당첨을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 * 신분공고 내용은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기재하였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우리 공사 토지청약시스템에 게시된 공급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 확인에 따른 책임은 매수인(신청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토지판매부 ☎ 1600-1004 / 062-360-3175, 3176

2014년 10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예쁜사람은 많다 돈 많은 사람도 많다

정신이 맑고 마음이 예쁜사람도 많았으면 좋겠다.

나눔과 배려가 세상을 바꾸듯이

신협이 예금과 대출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 비과세 예금 3,000만원 (1인당 예금보장 5,000만원)
- 대출최고한도 28억원 (최저금리 3.8%)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금호지점/중앙지점

하반기 부동산 대전망과 실천투자 전략세미나

99% 적중률 최고의 부동산 실전문가 김영표 대표가 말하는 소액으로 선택할 수 있는 월세나오는 부동산을 찾아서..

종자돈 3천~1억으로 부동산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장 소	NC백화점(구.현대) (10층 문화센터)
일 시	2014. 10. 8. (수) 2시 /7시 선택
문의전화	062)383-1330 (사전 예약)

강/의/내/용

- ① 하반기 및 2015년 부동산 트렌드 분석 및 투자전략 대공개
- ② 한국 주택시장의 미래 분석과 전망
- ③ 광주·전남지역 부동산 흐름 및 투자전략 투자 전략 공개
- ④ 토지 대전망-토지 가치변화에 따른 개발지역 투자 포인트 해법공개
- ⑤ 3천~1억의 소액투자로 월세 받을수 있는 투자지역 매물 추천

김영표 부동산 실전문가 전문가

(현) 영지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 영지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현) 각종관광사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80회 이상 강의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뉴스웨이 인터넷신문 컬럼게재중

NAVER 영지R&D부동산투자연구소 검색